

우리 나라 성문(城門) 형식과 그 유형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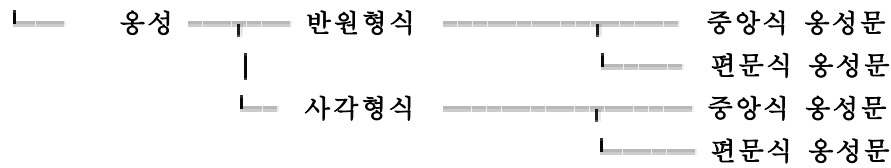
文化財研究所 保存科學研究室長

金 東 賢

성문은 성곽(城廓) 시설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상 성곽의 내외를 연결하는 관문(關門)이 되며 유사시에는 적의 주요 공격 목표물이 된다. 또한 성문은 성곽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의장상의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형식의 발전 단계는 다양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침범 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의 목적으로 목책(木柵)이나 토축(土築)으로 성곽이 축조되었다. 이러한 원시적 방어시설은 인류 사회의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천으로 차츰 석축이나 전축(塼築)의 성곽으로 발달하였으며 전술적 무기의 대두로 견고한 성문 위에는 문루(門樓)를 비롯하여 웅성(甕城), 적대(敵臺) 여장(女牆) 등의 방수(防守) 시설이 구비되었다. 이러한 성문시설들이 갖추어지면 질수록 공격자의 주목표가 되었고 이를 방어하려는 수비자측 입장에서는 보다 튼튼하고 적을 위압할 수 있도록 성문시설에 온갖 건축적 재능을 발휘하여야만 되었다. 따라서 성문의 여러 시설들에는 당시의 최고 건축술이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성문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성문이라 하면 간단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다. 간단한 성문은 기본성벽에 출입문만을 낸 것이다. 문루도 없고 다만 성곽의 안팎을 내왕 할 수 있도록 만 한 것이다. 반면 복잡한 성문 문루는 물론이고 웅성과 적대 등을 구비한 성이다. 이렇게 간단한 성문과 복잡한 성문은 성문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고 시대에 따라서도 형식과 유형이 다르기도 하다. 문중에 가장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수원성곽의 장안문과 팔달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성문에 갖추어진 시설들을 기본 성문형식으로 보고 우리나라 성문의 유형과 그 세부수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성문형식 및 유형표)

1. 출입문

출입문은 성문의 기본이 되는 시설로서 그 기능상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평상시에 성곽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녁이면 문을 닫고 경비를 엄중히 하였고 유사시에는 적의 목표물로 공방의 중요지점이 됐다. 따라서 출입문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게 마련이다. 그 배치는 일반적으로 평지성곽일 경우에 동서남북에 각각 큰문을 설치하고 지형상 필요하면 부수적으로 큰문 사이사이에 작은문을 세웠다. 그 대표적인 예는 서울성곽과 수원성곽에서 볼 수 있다. 출입문은 문루의 기단 중앙에 설치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유구에서 보면 대부분 중앙 한곳에만 문을 두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헌 자료에 의하면 기단 중앙에 문을 내고 그 좌우에 따로 각각 한 개의 문을 더 내어 모두 세개의 출입문도 있었던 것 같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고려 현종 때 세운 개성 라성의 선의문(宣義門)과 황성의 광화문(廣化門)이 중앙에 정문이 있고 그 좌우에 각각 협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 그러나 그 형식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현존 광화문(光化門)과 흡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출입문이 한 개가 아니고 세개가 있다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한 개의 출입문이 있는 것보다 더욱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외관과 의장상의 이점도 있었겠지만 방수목적으로는 하나의 출입문보다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개의 출입문을 가진 성문은 조선시대 성곽에서는 볼 수 없다. 출입문은 외관이 일반적으로 홍예식(아치식)문이 많다. 기저부에서 수직으로 올려 쌓다가 정상을 향해 곡선으로 둥글게 쌓는 방법인데 성문의 출입문만이 아니라 돌다리나 석빙고 기타 석물구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이 축조법은 돌이라는 재료에서 생기는 역학적 제한과 구조적 내구성을 위해 생긴 축조방법이다. 자체의 구조도 구조이지만 위에서 내려 누르는 하중을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해 성문의 출입문들 대부분이 이 홍예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성의 작은문에는 홍예식 대신에 장대석을 수직벽 위에 가로 건너 질러 놓거나 혹은 무쇠로 부은 문미쇠를 건너질러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유례는 많지 않고 홍예형식이 기본이 되었던 것 같다.

홍예문 형식은 그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로 그 유형이 다르다. 홍예모양이 반원형으로 된 것, 타원형으로 된 것, 포물선형의 것, 마제형(馬蹄形)의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이 네가지 유형중에 반원형 홍예문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형식이며 널리 보급되었던 것 같다. 서울의 남대문을 비롯하여 중요 성문에 사용되었고 타원형 홍예문은 일부 지방의 성곽 성문에서 보일 뿐이다. 북한에 있는 의주 남문이라던가 영변의 남문이 타원형 홍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포물선형 홍예문과 마제형 홍예문은 극히 드물게 보이는 형식으로 일부 성문에 국한된 특수형이라 할 수 있다. 평북 피현군의 백마산성 외성의 남문이 포물선형 홍예문이며 구성 남문이 마제형 형식을 하고 있다.²⁾

홍예식 출입문이나 장대석 평형식(사각형식) 출입문에는 모두 문짝을 단게 시설되었

는데 보 통 두짝 판문(板門)을 달아 여닫게 되어 있고 안쪽에서 든든한 빗장을 만들어 문을 잠그게 하였다. 문짝은 두께가 10cm이상의 두꺼운 판재로 하고 외면쪽에 두꺼운 철판을 마치 갑옷 모양으로 붙인 것이 있고 붙이지 않은 것이 있다. 철판을 붙인 문짝은 적으로부터의 파괴와 화재에 견디기 위한 시설로 보이는데 중요 성문에는 이 시설이 꼭 있었던 것 같다.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평양 보통문, 전주 풍남문 등에 그 유예가 남아 있다. 철판을 붙이지 않은 문짝은 철판 대신 요소 요소에 금구로 장식하고 문짝자체의 약한 곳에만 철판을 붙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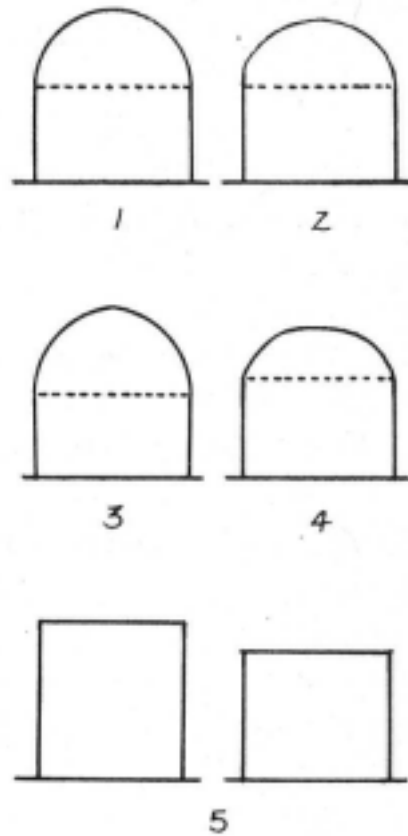


그림 1. 문(출입문)의 형식

- 1) 반원형 홍예식
- 2) 타원형 홍예식
- 3) 마제형 홍예식
- 4) 포물선형 홍예식
- 5) 평형 (사각형)식

2. 문 루

출입할 수 있는 홍예문 위에는 문루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다. 주요 성문에는 문루를 반드시 건설하여 성곽의 위엄과 외관을 아름답게 하였다. 또한 유사시에는 이 문루를 전술적 지휘소로 사용하였던 것 같다. 대표적인 문루는 서울의 남대문(그림 2) 수원의 팔달문 평양의 대동문 등이다. 문루에는 단층과 중층의 형식이 있는데 성문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성문이라고 모두 문루를 건설하지는 않았다. 부차적인 성문이나 암문에는 문루는 건설하지 않았다. 중층 문루를 세운 성문은 중요 도성의 정문이나 주요 교통요지에 놓이는 성문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수원의 장안문(6.25때 소실된 것을 1975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였음) 팔달문, 평양의 보통문과 대동문, (그림 3) 의주 남문과 전주 풍남문, 영변 남문, 경성 남문 등이 모두 중층 문루이며 이들의 평면적 규모는 100m²(30평)이상이다. 중층 문루 중에 가장 큰 평면적을 가진 문루가 서울의 남대문으로 178m²(53평)나 된다. 단층으로 된 문루는 개성 남대문(그림 4)을 비롯하여 수원의 화서문, 서울의 창의문 평양의 칠성문 등 그 수가 적지 않다. 단층 문루는 대개 평면적이 100m²(30평)이하이며 가장 큰 성 남대문만이 100m²에 달한다. 작은 단층 문루로는 평면적이 20m²(6평) 내외인데 평양의 현무문과 대흥산성 북문은 각각 22m², 19m²이다. 이들 문루들의 기둥이 세워진 칸수구성(間數構成)을 보면 정면은 3칸과 5칸이 가장 많고 측면은 한칸에서 4칸까지 있다. 정면의 칸수를 기수로 하는 것은 한국 건축 기둥칸수 구성의 기본형으로 건물의 정면 중앙에 기둥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중앙 주칸은 협칸이나 퇴칸크기보다 넓게 잡고 있는데 이는 건물의 전체 균형이 안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면이 5칸인 문루는 서울의 남대문과 동대문이고 수원의 팔달문과 장안문에서만 볼 수 있다. 평면이 5칸인 문루는 특수 성문의 문루에서만 보이는 것 같다. 그 외의 문루는 대개 3칸을 정면의 기본 칸수로 하였다. 정면 칸수가 3칸일 때 측면 칸수는 일반적으로 한칸 내지 3칸이며 5칸의 정면을 가진 문루는 측면이 2칸 내지 4칸으로 이루어졌다. 단층 문루들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 형식이 보통이며 중층 문루는 정면과 측면의 칸수가 모두 3칸으로 된 것이 많은 것 같다. 작은 규모의 문루에는 정면 3칸에 측면 한칸도 있다. 이들 문루들의 정면과 측면비를 보면 큰 규모의 중층 문루에서 3 : 1과 3 : 2의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붕모양에 따라 구성비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지붕의 형식이 우진각지붕(지붕면이 4면으로 되고 측면에 합각이 없는 지붕형식)으로 된 문루는 정면에 대해 측면비가 좁아지고 이와 반대로 팔작지붕(지붕면이 4면으로 되고 측면에 합각이 있는 지붕형식)으로 우진각지붕과 맞배지붕의 합성형식은 정면 길이에 측면비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붕형식이 건물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대개 건물형식에 따라 독자적인 비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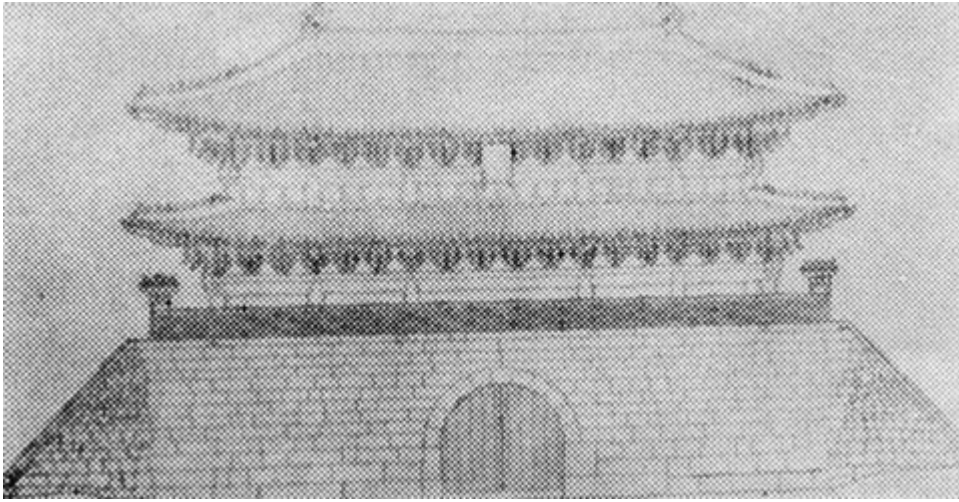


그림 2. 서울 남대문(南大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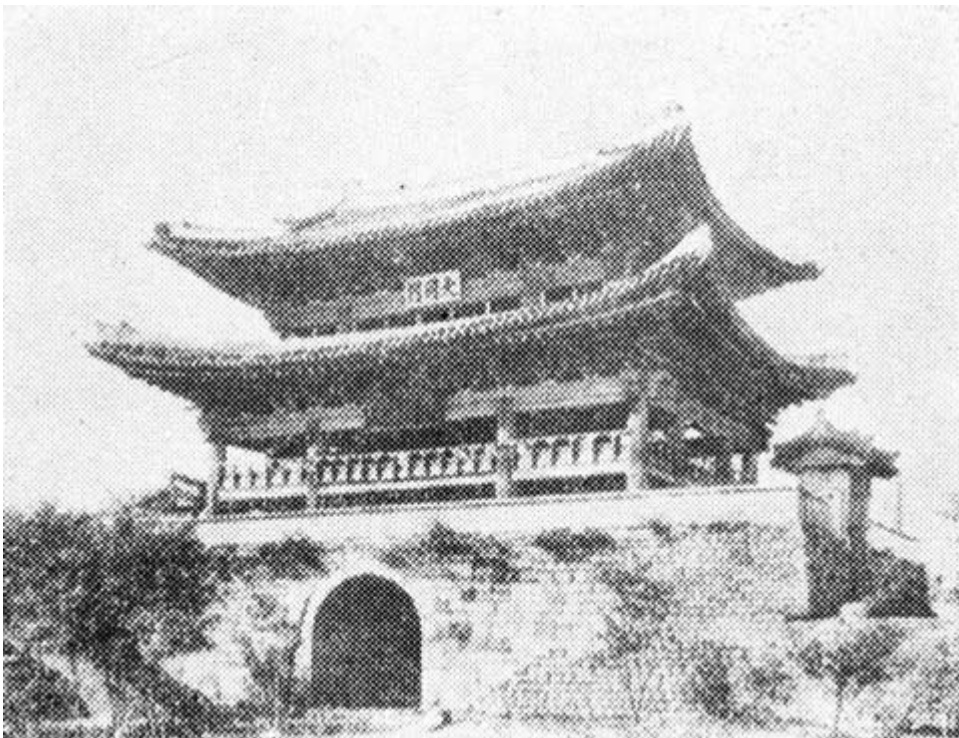


그림 3. 평양(平壤) 대동문(大同門)



그림 4. 개성(開城) 남대문(南大門)(1930年)

3. 적대

적대는 문루 좌우에 설치되어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도록 된 방어시설의 일종이다. 적대를 구비하고 있는 성문의 예는 비교적 적다. 대부분의 성문에는 적대를 마련하지 않고 그 대신 성문을 성벽줄기에서 안쪽으로 집어 넣고 성문좌우 성벽을 밖으로 내밀어 적대 구실을 하도록 되었다. 즉 기본성벽 돌출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서울의 남대문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영변 남문에서 볼 수 있다. 완전한 적대 시설이 구비된 성문은 별치식이라 할 수 있는데 수원의 장안문과 팔달문이며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그림 5)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수원의 안문 적대는 성문 좌우로 약 62m (53보)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적대는 절반이 성벽 밖으로 돌출되었고 절반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나온 적대의 밑부분 길이는 정면이 약 5m (26척), 위에서 약 4.1m (21척)이며 양쪽의 측벽은 밑에서 약5.6m (29척), 위에서 약 4.7m (24척)이다. 여장은 밖의 3면에 철(凸)형 여장을 11첩(堞) 두르고 안으로 평여장을 들렀다. 적대의 높이는 기본 성벽보다 높이 올려 계단을 놓아 오르게 하였고 외부 벽면에는 총구멍(懸眼) 3개를 설치하였다. 적대와 같은 기능을 한 유구가 평양 칠성문에 보이는데 이 성문의 경우는 성문에서 좀 떨어진 한 모서리에 평면원형의 성벽을 돌출시켜 적대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어 흥미롭다. 또한 성곽은 아니지만 궁성의 전면에 망루 시설을 하여 적대와 같은 기능을 한 예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경복궁의 동십자각에서 볼 수 있다. 궁성의 정문인 광화문을 중심에 두고 그 좌우에 각각 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을 세웠는데 이러한 시설이 성문의 적대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들 모두는 유사시 적의 공격을 능률적으로 방어하고 격퇴시키기 위한 용의주도한 시설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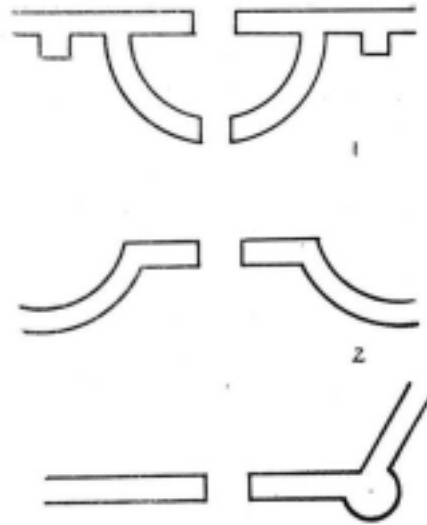


그림 5. 적대의 형식

- 1) 별치식 적대
- 2) 기존 성벽 돌출식 적대
- 3) 특수형식 적대

4. 여장

여장은 기본 성벽이나 성문, 옹성 위에 성벽면을 따라 축조된 보신용 측담을 일컬어 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첩(女堞) 혹은 타(堞)라고도 한다. 이 여장 벽면에는 총안(銃眼)과 타구(堞口)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예이다.

여장은 그 외형의 입면 모양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평여장(平女牆) 반원형여장(半圓形女牆), 철(凸)형여장이다. (그림 6)

평여장은 널리 적용된 일반적인 유형으로 타(堞)의 윗면이 수평을 이룬 타와 타의 연속 여 장이다. 타와 타 사이에는 타구가 설치되고 타의 길이는 거의 일정하게 마련되었다. 화성성역의례에 의하면 수원성의 여장은 타의 길이가 3.88m (20척) 높이는 97cm (5척)를 기준으로 하고 타면(堞面)에는 좌우에 15.5cm (8치)의 방형(方形) 원총안(遠銃眼)을 각각 한개씩 뚫고 타면 중심에는 19.4cm (1척)의 방형 근총안(近銃眼) 한개를 뚫었다. 또 타구의 높이는 여장 높이의 반으로 하고 넓이는 9.7cm (5치)이다.³⁾ 즉 하나의 여장에 세 개의 총구명이 설치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총안과 타구의 밑면은 밖을 향해 경사지도록 하였다. 이는 근접해 있는 적을 쉽게 공격하기 위한 방어시설이다. 반원형여장은 그 예가 많지 않다. 수원성곽의 경우를 보면 수문(水門)이나 암문(暗門)에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모양은 반원형 타를 연속으로 붙여 놓은 여장인데 타의 중심에 원총안 한 개가 뚫려있고 그 좌우 아래쪽에 근총안이 각각 한 개씩 있어 모두 세 개의 총구명이 설치되었다. 이 여장은 다른 여장에 비해 근접한 적을 집중적으

로 공격하기 쉽게 된 여장이다. 또한 타와타 사이가 조밀하게 설치되어 한곳으로 몰려드는 적을 일시에 퇴거할 수 있도록 되었다. 칠(凸)형여장은 평여장의 변형 여장으로 평여장의 모양에서 타구를 두 단으로 접어 만든 것이 다르다. 따라서 타의 모양이 요(凹)형이 되고 타구는 칠(凸)형으로 되어 멀리 있는 적과 가깝게 있는 적을 일시에 공격하도록 시설되었다. 따라서 그의 설치는 웅성, 적대, 치등 적을 사격하는데 편리한 지점들에 사용되었다. 타면에는 중심에 원통안 한 개를 뚫었을 뿐이다. 이러한 여장형식은 수원성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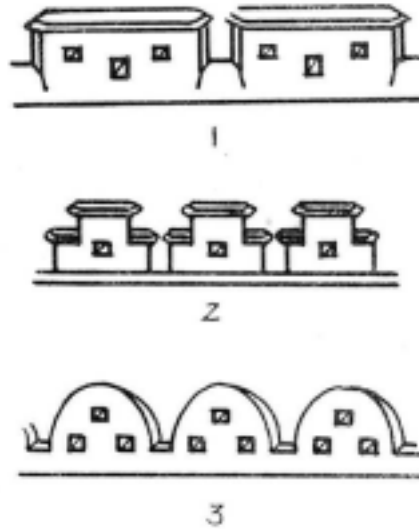


그림 6. 여장의 형식

- 1) 평 여 장
- 2)凸형여장
- 3) 반원형여장

5. 웅 성

웅성은 기본성곽의 출입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2중적 성벽이며 2중적인 출입문의 역할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공격을 받을 경우 기본 출입문에 적이 직접 당도하지 못 하도록 적을 앞서 한번 방어하고 기본문의 침공에 시간적 지연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이다. 웅성의 평면형식은 반원형의 것과 사각형으로 된 두 가지가 있다. (그림 7) 반원형으로 된 웅성은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동대문 웅성이며, 수원의 장안문과 팔달문에서도 볼 수 있다. 사각형의 웅성은 고구려의 통구성(通溝城)에서 볼 수 있으며, 개성 라성 선의문자리 앞에도 웅성터가 남아 있다. 웅성은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다는 확증이 있으나 성문마다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중요한 성곽의 중요한 성문들에만 설치되었다. 그런데 서울 남대문과 개성 남대문에는 웅성이 없다. 왜 중요한 성문인데 웅성이 없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현존하는 반월형옹성 유구로는 서울의 동대문 수원의 장안문, 팔달문, 창용문, 화서문, 평양의 대동문 등의 평지 성문과 산성인 오석산성 남문, 백마산성 내성 남문들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반월형옹성에 딸린 옹성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즉 옹성중앙에 만든 중앙식 옹성문과 옆으로 낸 편문식 옹성문이 있다. 중앙식 옹성문은 수원의 장안문과 팔달문에서만 보이는 특수형이며 대개는 편문식 옹성문이 많다. 편문식 옹성문은 서울의 동대문을 비롯하면 평양 대동문, 수원의 창용문 화서문에서 보이며 산성의 옹성은 거의 대부분이 편문식 옹성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식 옹성문은 수원의 장안문과 팔달문은 18세기에 쌓은 성문으로 성곽중 가장 진보적인 수법을 도입하여 만든 성문이다. 이들 두성문은 성곽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요 교통의 관문이며 특히 서울로 향하는 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성문은 웅장하고 큰 규모로 건설되었을 뿐 아니라 건물의 세부 의장도 화려하게 치장되었다. 화성성역의례에 의하면 옹성의 규모를 설명하였는데 본성문에서 옹성까지의 거리와 본성문에 부착되는 좌우 지점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수원 성곽의 동문인 창용문의 옹성은 본성문 좌우에서 각각 7.6m (6보 3척) 떨어져 있으며 옹성의 반경은 5.6m(28척)로 되어있다. 또한 옹성문 위에도 문루를 두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장안문의 옹성문 위에는 단층의 작은 문루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림 8)

옹성문에도 본성문에서와 같이 문짝이 달리고 곁에는 쇠판을 붙였으며 위에는 불이 당겼을 때 곧 불을 끌 수 있도록 물을 담아 놓았던 오성지(五星池)가 있었다. 그런데 화성성역의례에 의하면 성서(城書)에 이르기를 옹성의 규모는 본성의 규모에 따르며 형식은 반월형으로 한다. 옹성문 위에는 문루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본성이 옆에 서서 능히 방어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옹성문 위에는 문루를 짓지 않는 것이 본래의 제도였다고 생각된다. 의례의 그림을 보면 장안문 위에는 문루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왜 장안문에서만 옹성 문루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필시 화성성역의례가 편찬된 뒤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장안문을 중요시 한데에 그 원인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의례 기록에 의하면 장안문 옹성에 대한 규모와 장비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즉 옹성은 본성 성문의 좌우에서 각각 약 8.1m (7보) 떨어져 달려있으며 벽들로 쌓고 옹성 높이는 약 3.3m (17척)이며 벽체 두께는 밑에서 약 2.9m(15척) 위에서 2.3m(13척)이다. 옹성 외부에는 총구멍 16개를 만들고 내부에는 물구멍 8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문의 개관 위에는 삼물 (삼화토)을 펴고 그 위에 다시 벽전을 깔고 그 위에 오성지를 설치하였다.⁴⁾

이 기록에 의하면 옹성문 역시 본성문 못지 않게 중요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각형 옹성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통구성 성문과 개성 라성의 선의문에서 있었다. 자세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이들 두 옹성은 옹성문의 형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사각형 옹성이지만 통구성 옹성문은 좌측으로 문이나 있고 선의문의 경우에는 정면 중앙에 있다. 이 사각형 옹성은 남아 있는 예가 적고 오래된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형식으로 반월형 옹성이 있기 이전에 선행된 옹성 유형으로 생각된다.

사각형 옹성은 반월형 옹성에 비하여 실제 작전에 모순점이 있고 방어 전방의 시야가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개량시킨 것이 반월형 옹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 성문들의 형식과 유형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건축유구 가운데 성문이 차지하는 건축적 가치가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의 남대문을 비롯하여 수원의 장안문, 팔달문, 평양 보통문 등은 우리 나라 성문을 대표할 만한 건축물들이다. 이들 성문에 나타난 하나 하나의 처리수법, 비례 등은 탁월한 건축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건축소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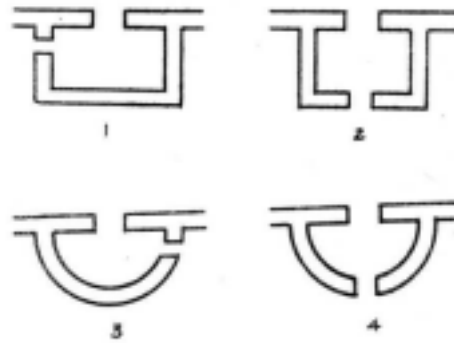


그림 7.瓮성의 형식

- 1) 사각형瓮성 (편문식瓮성문)
- 2) 사각형瓮성 (중앙식瓮성문)
- 3) 반원형瓮성 (편문식瓮성문)
- 4) 반원형瓮성 (중앙식瓮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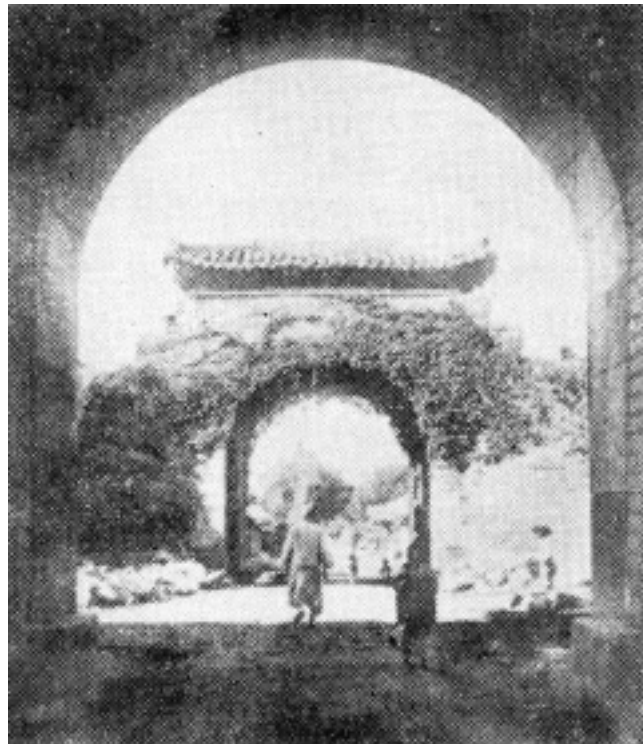


그림 8. 수원(水原) 장안문(長安門)瓮성문(甕城門)

<引用文獻>

1. 華城城域儀軌：1965. 3 水原文化財保全會
2. 서울 特別市史(古蹟篇)：1963. 1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3. 朝鮮古蹟圖譜卷11：1931. 6 東京
4. 우리나라 城門形式에 대한 資料：박황식, 考古民俗 1966年 4號
5. 우리나라 돌로 쌓은 城壁構造에 대한 약간의 技術資料：박황식, 考古民俗1966年 2號

1) 徐兢

『高麗圖經』

『宣義門.....其正門 二重上有樓觀 合爲甕, 城南北兩偏別開門相對』

『廣化門.....而形制略如宣義. 獨無甕城藻井之工. 過之 亦開三門』

2) 박황식

『우리나라 城門形式에 대한 資料』 考古民俗 1966年 4號

3) 華城城域儀軌 卷首 圖說

『制宣以高五尺闊二十尺爲準.....堞口高可齊心闊爲五寸.....牆面左右穿遠統眼各一方八寸當中而倣天井之制說近眼一八 通穿眉石外瑞方亦一尺可以.....』

4) 華城城域儀軌 卷首 圖說

『甕目正門左右 武砂各七步而起 甕築爲城高十七尺 下厚十五尺上收厚 十二尺外面穿懸眼十六內面設甕漏槽八..... 蓋板上築三物仍累甕輒上設五星池』

- 끝 -